

교회소식

1.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지난 수요일부터 시작).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오늘 예정되었던 제직회는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합니다.
3. '예수 중심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통독 이번 주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입니다.
4. 매주 수요일 공동체별 성경 인물연구가 화상(Zoom)으로 있습니다 (베트남 - 요나, 오후 8시).

공동체	성경인물	공동체	성경인물
베트남	요나 (욘 1장)	캄보디아	스데반 (행 6:5-15, 7장)
터키	바나바 (행 11장)	통가	빌립 (행 8장)
일본	디모데 (딤후 1장)		

5. 인도자 성경공부가 오는 3월 11일(금요일) 오후 8시에 화상으로 있습니다(교재 참조).
6.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찬송, 기도, 안건 토의). 4월부터는 월례회를 격월로 모이는 것을 의논하기 바랍니다(짹수 달).
7. 생명의 삶 3월 호가 도착했습니다. 신청한 성도들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 성전 이전은 St Luke's 교회(130 Remuera Rd)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M a r c h

교회사역일지
 3월 6일(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3월 8일(화) 인도자 성경공부(Zoom)
 3월 27일(주일) 성찬 주일

기도순서

3월 13일 (주일) 김병진 목사
 3월 16일 (수) 가정 예배
 3월 20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23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해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일예배 -
 목요일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10호 2022.03.06

주일예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호세아 6:1-2 인도자

*찬송 15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7장 다함께

대표기도 장경희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1-3 인도자

찬양대 찬양 영광스런 주를 보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태한 목사

찬송 17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응답송 411장 (1,3절)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공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님들께

고국은 지금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요셉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통일 복음 왕국을 이루어 경제가 회복되고 사분오열 갈라진 민심이 하나로 모여져서 세계선교에 다시 한번 쓰여지는 마지막 시대 제사장 국가, 국제 사회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주시는 기도 덕분에 선교지는 각 부서 모든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서서히 정상화 되어가고 있고 이전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름값 상승과 맞물려 모든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실업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곳곳마다 술 파티를 벌이며 마약, 섹스 중독으로 흑인촌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문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땅의 등불이며 악취로 오염된 이곳에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사역 소식을 나눕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코로나와 연말 휴가 분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회복되고 있습니다. 활용품을 전체 어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찬양과 전도, 교회 관리 등 봉사한 아이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을 주며 격려하였습니다.

학생회 학부모 초청 모임: 선생님들과 학생 대표의 간증이 있는 후,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한 원인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신 장면에 대해 설교하며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과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웠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기 첫 성전 출입: 아동부 교사로 봉사하던 시포가지가 임신 후, 교회를 떠났다가 아기(생후 6개월)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온 교인들과 함께 축복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제목

1. 교육관 건물을 복음 전파를 위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 현지인 리더 및 사역자들과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목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실)

찬	양	-
성	경	마가복음 1:29-31
설	봉	심방 하시는 예수님
	교	이태한 목사
기	도	-

나눔란

2022년 2월 2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신앙인의 두 갈래 길> 디모데후서 4:9-11

신앙생활 중에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는 자들과 데마를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데마의 유혹 앞에서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안전 면에서 너무나 열악했던 시대에 살았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선교지로 삼아 비전과 열정으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헌신한 바울에게 데마는 동역자이며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정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동역자인 누가와 데마의 문안을 함께 전하고(몬 1:24)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사랑을 받는 누가와 데마의 문안을 함께 전할 정도로(골 4:14)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이랬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10).

1) 데마가 떠난 시기와 이유: 데마는 바울 생애의 말년에 고난 속에서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깝다고 자각할 즈음에(딤후4:6) 바울을 떠났습니다. 본문에 쓰인 "버리고"의 원어 뜻은 내팽개치는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지구와 땅을 의미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요 3:16)에 나오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거스르는 악한 사조, 경향, 철학, 형식, 제도,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며(롬 12:2)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요일 2:15). 주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세상을 데마는 사랑했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 데마가 간 곳 데살로니가: 바울의 전도로 복음화되다시피 한 데살로니가는 당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던 도시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곳이었습니다(살전 1:8).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 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데마의 움직임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으로 섬기는 신앙에서 안이하고 적당하게 방관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로의 이동입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쉬는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쉬운 신앙생활의 도피이며 후퇴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데마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섬김과 모든 활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멀리 있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데마 앞에 로마와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로마에 머물며 자신의 지성과 능력과 정열을 다 바쳐 헌신한 누가와(11) 세상의 안락함을 택한 데마 사이에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기쁨, 신앙의 열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신(막8:34) 말씀을 새기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수시로 점검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3. 코로나19 팬데믹까지도 복음 전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